

■ 실무진에게 듣는 연등축제 뒷 이야기

세계인이 함께하는 불교문화 한마당 연등축제가 5월 16일 전국 지방공공에서 화려하고 성대하게 회향했다. 단 하루, 몇시간 동안의 연등행렬을 위해 1년 여를 기도정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온 이들을 만났다.

“모두 즐기는 잔치 만들어요”

봉축위 박상희 총괄팀장

“금년 연등행렬은 학생들이 시험기간을 끝내고 여유있게 참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날씨가 맑았잖아요? 답기는 했지만 행복한 고민이었지요.”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공간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몇 년 만에 부처님오신날이 학생들 중간고사 기간 후에 찾아온 해입니다. 시험기간이 끝난 학생 참여를 늘리려 독려를 많이 했어요. 연희단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어울림마당과 동국대 운동장에서 봉행한 화합한마당(연등법회)에 1주일 간격이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연희단은 단 하루를 위해 1년 여를 연습합니다. 운동장에 비라도 오면 어쩌겠어요? 화합한마당 공연에 앞서 사전예행연습 차원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다함께 모여 하나 된 신명나는 자리를 열어 봉축기운을 높이자는 것이 이유이겠지요.

“15년을 연등축제와 함께 보냈는데 연등축제의 매력은?”

연등축제는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였는지, 몇 개의 장엄등이 행렬에 참여했는지보다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과 그 속에 담긴 사부대중의 정성이 소중합니다. 이것이 연등축제의 매력 아니겠어요?

“연등축제의 바람직한 모습은?”

큰 단체는 과시적이고 작은 단체는 기 죽지 말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만나면 웃을 수 있는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또, 각자가 개인등을 만들어 스

스로 밝히는 문화가 왜 진정한 연등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여인의 등불은 얼마만큼의 정성을 등에 담았는가에 대한 교훈이잖아요? 단체가 내놓는 장엄등 문화는 엄밀히 말해 우리 전통이 아닙니다.

“개인 연등을 직접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텐데?”

옛날에는 재료까지 직접 구매만 들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재료를 넘쳐나는데 만들 줄을 몰라요. 내 손으로 등을 만들겠다는 마음을 내고 원리만 알면 간단합니다. 누구나 쉽게 등을 만들 수 있게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등만들기 강습회를 진행 중입니다.

“내년도 연등축제는 어떻게 준비할건지?”

내가 준비하는게 아니라 전국의 단체·대중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자료를 수집해 우선 해외홍보에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이벤트가 아닌 명실상부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경쟁심 등 비불교적인 사고로 시비분별에 꼬달려서는 안 돼요.

연등행렬 코스가 동국대로 바뀐 이후 지난해 작은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행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연등행렬에는 모두가 정성껏 준비한 연등을 들고 나와 종묘를 신명나는 축제마당으로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조동섭 기자

“변화 위해 사부대중 참여 절실”

광주봉축기획단 문귀례 사무국장

“의식을 위한 행사보다는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연등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행사는 많은 축사로 대부분 참가자들이 지루해하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문귀례 사무국장(사진)이 유일하다.

“연등축제에는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벌써 5-6년째 비슷한 내용으로 봉축행사를 진행했어요. 변화를 위해서는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문 국장은 “연등축제는 쉽지만 변화해야 하고, 그런 변화를 위해서는 봉축기획단에 스님, 신행단체와 신도회,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긴 시간 연등축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귀례 국장이 강조하는 연등축제의 변화는 대중과 함께 하는, 대중이 즐기는 축제이다.

“연등법회의 식순을 간소화하고 있는 대중적인 내용으로 하는 등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문 국장은 “매년 일찍 서둘러 봉축기획단을 구성한다고 했지만 항상 늦어졌다. 내년 봉축행사를 위해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봉축기획단을 일찍 구성해 광주전남 불교의 특색을 살린 많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명실상부한 지역 축제로 발전”

전북봉축위 이원일 사무국장

“올해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는 우리 문화의 계승 발전에 중점을 두고 전통문화 차원의 체험마당을 운영하고 전주 지역의 유명 농악단을 초청해서 불교문화와의 교류를 모색하고 전주 전역을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으로 함께 하는 세상”라는 봉축표어와 가장 일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원일 사무국장은 “아직도 전북 연등축제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스님들의 행렬을

보다 장엄하게 해야 하고, 질서유지 요원들의 사전교육 강화, 다수의 불자들이 사용하는 주름등을 전통등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연등행렬에 스님들만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서 “각 사찰별로 참여인원을 독려해 보다 많은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지역 축제로 연등축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온라인쇼핑몰
HyunbulShop

봄맞이 Sale
시은품 증정

총액 145,000
☎ 02)2004-8216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가 열린 5월 16일 종묘를 장엄한 제등행렬.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문화 시민축제로 만들 터”

부불련 박도환 사무국장

봉축 문화의 거리 10만 명, 봉축연합 대법회 3만 명 등 2010부산 연등축제에는 총 15만 여명에 이르는 부산시민이 동참해 그 어느 해보다 성황리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단 10일간의 축제를 위해 지난 1년간 구슬땀을 흘린 봉행위원회는 바로 7명의 재가불자로 구성된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영, 이하 연합회)다. 20여 년간 연합회를 지켜온 박도환 사무국장(사진) 및 직원들은 이번 축제를 100점 만점에 10점 모자란 90점이라고 평가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제등행렬 운동장 퍼레이드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 소재 의상업체로부터 대여한 전통의상 152벌을 부산 파라미터 소속 청소년들이 착용케 해, 청소년 불자들이 봉축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넓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봉축 문화의 거리의 경우 작년에 비해 부스는 줄어들었지만 10-20대 시민들의 참여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틀간 무상으로 나눠준 전통등 2000개가 동이 날 만큼 호응도가 높았고, 현장에서 등을 만들어보는 코너 또한 연일 북새통을 이뤘다

박 국장은 “신규 장엄물의 부재와 부산역 광장 및 광복로 일원에 전시할 수 있는 장엄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출품하지 않

아 매년 밝은 관람객들은 식상했을 것”이라며 사람들의 낮은 참여도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부산시민들의 연등축제는 16일을 끝으로 폐막했지만 연합회에는 국비 3억원과 시비 1억원 등 총 4억원의 예산 정산 및 결산보고, 축제평가 회 등의 업무로 6월말까지 숨 돌릴 틈 없이 바빔 예정이다.

박도환 사무국장은 “올해 처음 시도한 대형장엄등 시내 카페레이드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언론의 눈길을 끄는데 성공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만큼, 내년에는 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장엄등을 보다 많이 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복로 봉축문화의 거리를 통해 부스의 숫자가 많고 적응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하느냐가 더욱 중요함을 깨달은 만큼, 내년에는 불교문화 체험과 함께 종교를 초월한 시민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현 기자

국제 선불교 조계종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증시여기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준비 되셨죠?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세요.

- 사찰 등록
- 주지 임명
- 승려증 발급
- 행자 (예비 비구, 비구니 스님) 모집

어렵고 복잡한 것 싫습니다.
그저 종단의 보호만 받고 부처님 재산인 내 사찰 내 재산 내가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세계 각처에 어렵게 살아가는 극빈자들에게 종단에서 추진하는 중생 교화, 인간방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약속하면 됩니다.

개인 사찰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종단 법으로 일체 간여하지도 간섭도 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찰에서의 불사나 행사에는 이제 부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같은 도반이요 부처님 제자요 가족이기에 품앗이 정신으로 서로서로 도우며 아무리 조그마한 사찰이라도 원만하고 자랑스럽게 행사를 봉행하도록 협조합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산하종단 국제 선불교 조계종
총 무 원 : 02)733-5670, 733-5665 / 팩스 : 02)733-5671